

[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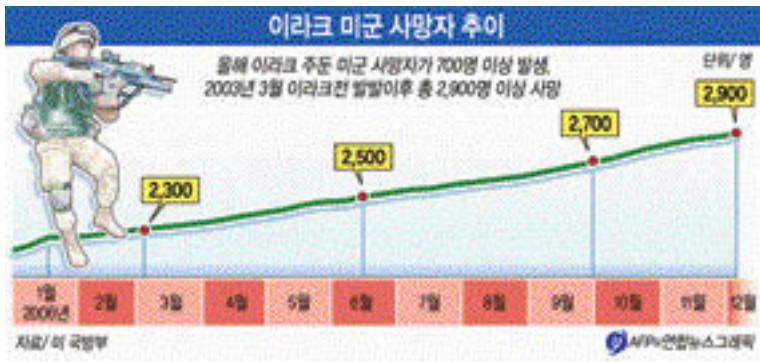
“美 전투병력 2008년초까지 철군”

미국의 공화 민주당 양당 원로급 인사들로 구성된 이라크연구그룹(ISG)은 2008년 초까지 전투병력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킨다는 목표 아래 미군의 역할을 전투에서 훈련, 지원 위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6일(현지시간)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했다.

이라크연구그룹은 또 이라크 사태 해결은 군사력만으로는 안되며 이라크, 시리아 등과의 대화에 나서고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분쟁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노력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대 이라크 전략은 중대 전기를 맞고 있다.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 등 공화, 민주당 원로 인사 5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연구그룹은 이날 발표한 최종보고서를 통해 “이라크 상황이 엄중하고 위태로우며, 계속 악화될 경우 이라크 정부 전복과 종파분쟁 확산, 알 카에다의 기반 강화 등 심각한 결과를 낳을



전투서 지원 위주 전환·이란·시리아와 대화 권고 이라크연구그룹, 부시 대통령·의회에 보고서 제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구그룹이 내놓은 보고서는 이라크 사태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전망을 개선시킬 수는 있다”며 각종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와 그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선의 전략과 전술”을 새로운 접근법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임무를

전투작전에서 이라크군 지원 위주로 전환해야 하며, 그럴 경우 2008년 1분기까지 돌발 사태가 없는 한 필수 경비병력 등을 제외한 모든 미군 전투 부대가 이라크에서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라크와 중동사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외교, 정치적 노력을 똑같이 중요하며, 미국은 이라크 안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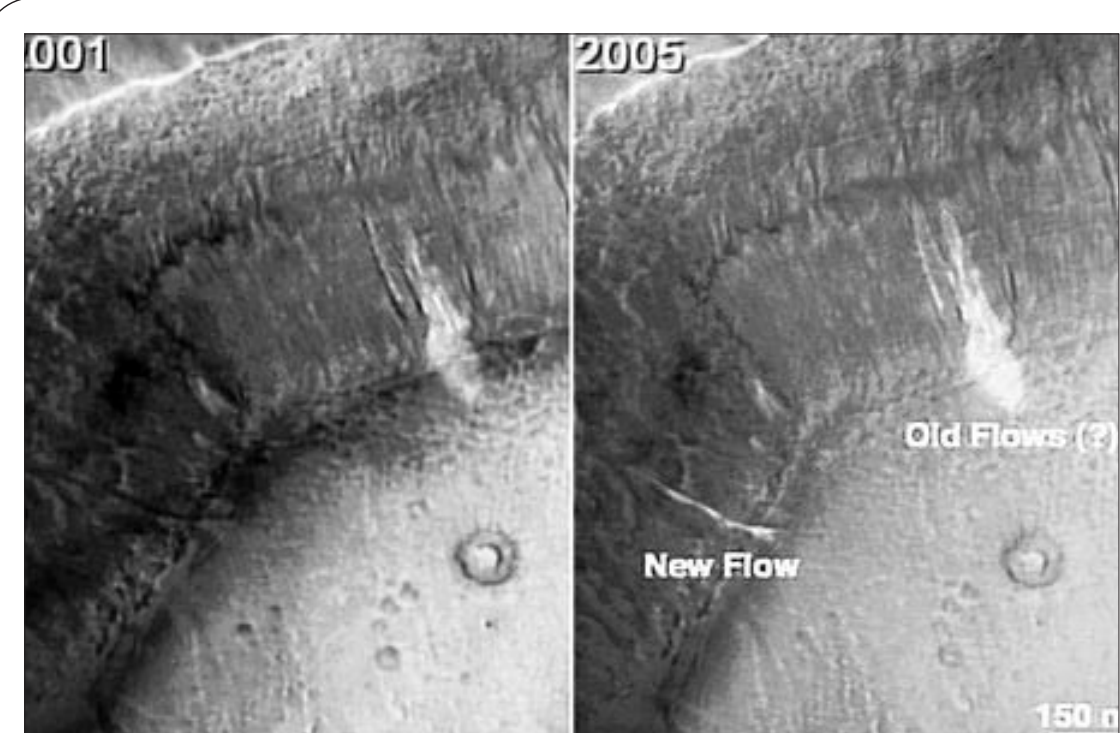
을 위한 즉각적인 외교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촉구했다.

특히 이라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이해관계가 큰 이란과 시리아와의 건설적인 협상에 나서야 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중동사태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미국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이라크 사태와는 별도로 이란 핵프로그램에 국제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아프간 사태 개입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고서는 주문했다.

베이커, 해밀턴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연구그룹은 이날 부시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베이커와 해밀턴 공동위원장은 보고서에 첨부한 서한을 통해 이라크 사태 해결을 위한 ‘마슬같은 방법’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 외교정책의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물론 의회와 정부 각 부처간의 협력과 단결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 항공우주국(NASA)이 6일 공개한 화성탐사선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가 보내온 화성 사진들. 2005년(오른쪽)에 화성 분화구 벽을 찍은 사진에는 2001년(왼쪽)에는 없었던 물 흐른 흔적이 새롭게 포착됐다. /신화=연합뉴스

“화성에 물이 흐르고 있다”

NASA '화성 탐사선' 전송사진 공개

얼어붙은 화성 표면에 지금도 간간 물이 흐르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사진들이 화성탐사선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MGS)에 의해 촬영됐다고 미항공우주국(NASA) 과학자들이 6일 발표했다. 수명이 다해 최근 지구와의 교신이 끊긴 MGS의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통신두절 이전에 촬영된 이들 사진에 흐르는 물이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 불과 3~4년 전 물이 흘렀음을 강력하게 입증하

는 크레이터의 형태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 있다면서 화성에 지금도 물이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화성 남반구에 나 있는 두 개의 크레이터 벽에 나 있는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이다. 공기가 거의 없는 얼어붙은 화성 표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은 곧바로 얼어버리거나 증발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수는 없지만 표면과 가까운 지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다가 주기적으로 새어나올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했다. /로스앤젤레스=워싱턴AP·로이터=연합뉴스

“AI, 인간 전염병 될 가능성”

FAO·전문가 등 잇단 경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H5N1 바이러스는 2003년 말 아시아의 가금류를 몰살시킨 이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로 확산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적어도 154명이 숨졌다. 세계은행은 향후 2~3년간 AI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약 1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AO는 특히 동남아, 아프리카, 동유럽, 코카서스 지방이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며 “어느 한 나라가 이 질병을 봉쇄하는데 실패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급속하게 다시 감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라산터 물러 FAO 사무차장은 “하나의 약한 고리가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놓은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자각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P통신이 전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H5N1 바이러스는 2003년 말 아시아의 가금류를 몰살시킨 이후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로 확산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적어도 154명이 숨졌다. 세계은행은 향후 2~3년간 AI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약 1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AO는 특히 동남아, 아프리카, 동유럽, 코카서스 지방이 H5N1 조류 인플루엔자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며 “어느 한 나라가 이 질병을 봉쇄하는데 실패한다면 더 많은 나라들이 급속하게 다시 감염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라산터 물러 FAO 사무차장은 “하나의 약한 고리가 도미노 효과를 초래할 수 있고 그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놓은 모든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자각하고

한국인 최초 우주인 러 우주선 탑승 계약

한국 최초 우주인의 러시아 우주선 탑승과 국제우주정거장(ISS) 체류에 관한 일정이 확정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백홍렬 원장과 러시아 연방 우주청 페르미노프 아나톨리 니콜라예비치 청장은 7일 오후(한국시간) 러시아 연방우주청에서 한국 우주인의 훈련 및 우주선 탑승에 관한 계약을 정식 체결했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다. 계약금액은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해외 민간인의 우주여행 사례를 감안할 때 우리측이 러시아에 지불하는 금액은 18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목숨 바친 가족사랑...美 울린 제임스 김

미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던 샌프란시스코 거주 한인 제임스 김(35 사진)씨 실종사건은 끝내 김씨가 쓰러진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비극으로 종결됐다. 지름길로 가겠다고 평상시에도 차량 진입이 힘든 양복 1차선의 산길로 접어들었다가 폭설에 갇히는 우를 범했지만 9일만에 세 모녀가 건강하게 발견되면서 미 언론들이 집중 보도하고 전세계 네티즌들의 격려가 쏟아졌으나 기대했던 김씨의 생환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온라인 웹진 'CNET'의 수석 편집장 김씨와 샌프란시스코에서 2곳의 옷가게를 운영하던 부인 캐티씨, 그리고 두 딸이 10박11일의 일정으로 여행길에 나선 것은 지난달 17일. 김씨 가족은 숙박 예정지인 골든비치로 향하기 위해 42번 도로를 타야 했으나 지나치면서 시스키유허립공원의 험준한 산악 도로로 접어들었다가 폭설에 갇혔다. 김씨 일가족의 실종 사실은 이로부터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펼쳐지는 사이에 이들은 약간의 스낵과 열매 등으로 연명했고 캐티는 아이들에게 젓을 먹이는 한편 휘발유가 떨어져 더이상 난방이 안되자 자동차 타이어를 태우며 혹한을 견뎌나갔다. 사고 발생 일주일만인 2일 오전 7시25분께 김씨는 적극적으로 구조를 요청하겠다고 도로로 출발했으나 오후 1시까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소식마저 끊긴 채 나머지 가족들은 이틀을 더 견디다 발생 9일만에 4일 오후 구조에 나선 헬리콥터에 발견돼 극적으로 구조됐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게이츠 美 국방장관 지명자 상원, 압도적 지지 '인준'

미 상원은 6일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지명자 인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찬성 95표, 반대 2표 압도적 지지로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게이츠 지명자는 조만간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후임으로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이날 투표에는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97명이 참여, 공화당 의원 52명과 민주당 의원 42명, 무소속 의원 1명 등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으로 게이츠의 국방장관 임명을 지지했다. 게이츠 지명자는 오는 18일 국방장관으로 공식 취임할 것이라고 테일러 페리노 백악관 부대변인이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쇼핑광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는 '방콕'

2위, 부에노스 아이레스. 전세계 쇼핑광(狂)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도시는 어디일까. 미국의 MSNBC 방송은 6일 삼점 앞에 내걸린 '세일'이라는 간판과 함께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쇼핑광들을 유혹하는 세계 10대 도시를 상세히 소개했다. 1위는 태국의 수도 방콕이 차지했다. 푸켓섬과 치앙마이 사원 등 유명 관광지를 찾는 길에 고급 실크, 보석, 전통 공예품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전통 시장들을 찾는 것도 색다른 기쁨을 준다고 소개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자 아름다운 도시,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2위로 꼽혔다. 이곳에선 고급 가죽제품을 구입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소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56명
KPA회원 2006년2차 필기합격자 총 319명

관공수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량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 8개월과정 / 1년 과정
- 정 이론+저녁이론강의+오후실전문예행+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 2개월 종합반-오전이론+저녁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개월 무료 동영상제작(회원제)
 - 전문지식실시용 가능
 - 정독서실 고시원 할인 혜택
 - 시뮬레이션 무료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조영어특강 수강
 - 신하반 선별 맞춤 수강
 - 매일 실전모의고사 실시(OMR7D) 성적차차기반성적으로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형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전담영어 후로알
www.police3112.net

공무원 합격 절호의 기회!!

교정직 특채

★ 2007년 700여명 모집예상! ★

영어없이 두과목만 응시 (교정학개론, 형사소송법)

2006년 교정직특채 최종(합격)모집의 합격률은 90%에 육박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www.mdgoosi.co.kr

야간 첫개강 12월 4일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취 222-4560

www.kjkimyoung.co.kr

대학편입 마무리과정(6주)

개설과목: 영어/생물/화학/유기화학/한문/한의학

1차개강: 12월 1일, 2차개강: 12월 4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개강 1월에정

한의학 전문대학원 대비반 1월에정

김영대학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취 227-8088

최첨단 디지털리모콘방식 최신형 태양히터 SUN Heater - 햇빛 난방시스템

高유가 시대 걱정!! 끝

인공태양히터(Solar Heater)는 산소를 태우지 않는 최고의 환경친화적인 기적의 히터입니다.

인공태양히터는 전기에너지를 증폭시켜 햇빛처럼 열기구 - 태양에너지로 전환시킨 나만의 적외선 난방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난방기(보일러)보다 10% 정도의 전기 사용량을 절감하며, 100%의 강력한 난방효과, 생온, 건조, 미용 그리고 조망정서효과까지 극대화시켜 줍니다.

세계적 환경 인공태양히터의 목적

- * 스위치를 켜는 순간 0.1초안에 2200도의 폭발열량으로 따뜻합니다.
- * 기름, 가스, 전기, 난방비 아깝게 절약할 필요없이 장소에 따라 사용하십시오.
- * 공간 열손실이 없으므로 난방비 손실도 없습니다.
- * 강의실, 교육장소, 교회 등 온풍기 소음, 기름냄새, 배연으로부터 해방되십시오.
- * 시안장군무지개 안전, 쾌적, 무취, 무소음, 무독, 강력난방, 산소를 태우지 않습니다.
- * 시안장의 난방중에도 쾌적한 환경으로 근무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 * 이제는 각종보조난방 따위는 더더욱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 * 크기와 무게가 다른 기존 난방기구에 비하면 콤팩트하며 안전합니다.
- * 독특하고 우아한 디자인 고품질의 차이를 확인하십시오.

일반용 전기 1일 10시간 사용기준
한달 전기최고사용료: **38,940 원**
으로 강력한 난방을 제공합니다.

인공태양히터 꼭 필요한 사용 용도 장소

- ▶ 공공장소, 호텔, 박물관, 공연장, 교회, 사무실, 매장, 놀이방 및 각종원, 병원, 현역원, 체육관, 공장, 학교, 노래방, 정비업소, 미용실, 피부 관리실, 매점, 편의점, 농수산물매장, 요식업체, 음식점, 지하차도, 주차장, 지하상가, 초소, 화원 등 주변에 모든 사업장에 사용해도 참 좋습니다.

www.kjkimyoung.co.kr

(주)컴텔햇선 COMTEL HotSUN 02)733-0582

태양히터 / 인공태양히터 가짜상품은 모두 떠나라!!